

배 포 일	2023. 10. 24.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3. 10. 25.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유희공간 적극 활용한 어린이 맞춤 체험형 작품 곳곳 마련		7	11	https://gcm.ggcf.kr/	부서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운영실 담당 : 최진실, 강슬기 전화 : 031-270-8629, 8622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유희공간 적극 활용한 어린이 맞춤 체험형 작품 곳곳 마련

- 개관 12주년을 맞아 어린이의 고유한 감각 경험으로 상상력을 높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작품 선보여 -

- ▶ ‘내 마음 속 박물관’을 표현하고 언제든지 ‘내 마음에 쏙 드는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워크 작품, 《내 마음 쏙! 박물관》 4점
- ▶ 어린이 신체 움직임과 감각적 상상력을 통해 다감각적 박물관 경험을 유도하는 작품, 《우리 몸은 무지개》 1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송문희)은 지난 9월 26일 개관 12주년을 맞이하여 언제 어디서든 박물관을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인 《내 마음 쏙! 박물관》과 다감각적 신체 경험을 제안하는 《우리 몸은 무지개》 작품, 총 5점을 전시 중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011년 공립 최초, 최대 규모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 문을 열어 1~3층에 대규모의 상설전시를 운영 중이나, 3층의 경우 개관 이래 상설전시가 바뀌지 않고 있어 개편과 변화에 대한 관람객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관 12주년을 맞아, 어린이의 고유한 감각과 상상력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규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

박물관 3층에서는 작가 커머너즈(Commoners)가 참여하는 《내 마음 쏙! 박물관》전이 9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박물관 3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본 전시에서는 소중한 물건을 생각날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꺼내 보는 것처럼 어린이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박물관’을 표현하고, 언제든지 ‘내 마음에 쏙 드는 박물관’을 즐길 수 있다. 해당 전시를 통해 어린이 관람객은 박물관에서 스스로 흥미로운 전시물을 찾아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며 ‘발견의 기쁨’을 쌓아가는 경험을 한다. 박물관으로 가는 길, 박물관에서 좋아하는 놀이와 전시물을 발견하고 함께 온 모두와 즐거움을 나누던 순간, 집으로 가는 길 등 박물관을 오고 가며 어떤 놀라움과 즐거움을 공유하는지, 그 시간과 여정을 깊게 들여다보고자 이 전시를 마련하였다.

디지털이 주는 생동감과 상호작용에 대한 작업을 지속해 온 작가 커머너즈(Commoners)는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각자 다른 표현과 상상을 펼쳐내는 웹 기반의 인터랙티브 아트워크(Interactive Artwork) 4점을 선보인다. 박물관 주변에서 마주쳤을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누굴까? 자연의 목소리>, 내가 좋아했던 놀이와 전시물을 담아 ‘나의 박물관’을 만드는 <내가 만드는 박물관>, 나의 상상 친구를 3D 조각으로 빚어 보는 <말랑말랑 꼬마 친구들>, 재미난 AR 가면을 쓰고 ‘오늘의 우리’를 촬영하는 <박물관 속 우리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박물관 2층 복도 공간에 마련된 박길종 작가의 《우리 몸은 무지개》 작품은 상설 전시실인 《우리 몸은 어떻게?》와 연계하여 우리 몸에 대한 다감각적 경험을 확장시킨다. 해당 작품은 무지개 색상을 가진 눈, 코, 입 등의 얼굴, 신체 모양의 앉을 수 있는 스톨 형태의 설치 작품으로, 어린이들의 휴게 공간이자 신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작품을 제작, 설치한 박길종 작가(길종상가)는 그동안 관람객의 감각적 경험 확장과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설치 작업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참신하고 유쾌한 즐거움을 전달해 왔다. 이번 작품에서도 작가는 어린이 관람객의 여러 신체 움직임을 통한 시각, 촉각 등의 감각 경험과 몸의 생김새를 여러 형태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작품을 체험하는 관람객은 코 모양의 콧볼 의자 위에 서로 기대 누워 손을 맞잡거나, 손가락 모양 의자 위에 일렬로 앉아 기차놀이를 해볼 수도 있다. 또한, 작가는 어린이 촉각 놀이를 통한 정서 발달과 촉감 창의력을 높이고자 치아 모양 스톨에 서로 다른 소재의 패브릭을 붙여 다양한 촉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해당 작품을 통한 몸의 활동과 다감각적 체험을 통해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우리 몸에 대한 지식적 이해에서 나아가 어린이 고유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박물관 경험을 확장하여 느껴보길 바란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마련한 5점의 체험형 작품을 통해 어린이의 고유한 감각과 상상으로 새롭게 느끼고 발견한 박물관 경험을 모두 함께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송문희 관장은 “앞으로도 박물관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작품 전시를 통해 모든 어린이가 박물관을 더 가까이에서 더 깊게 누리며 상상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작품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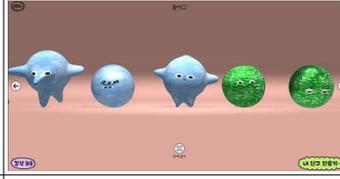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누리집 gcm.ggcf.kr 인스타그램 @g_childrens_museum

붙임1. 작품 및 참여 작가 소개 1

1-1) 작품 소개

전시명	《내 마음 속! 박물관》 Museum In My Pocket
주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참여작가	커머너즈 Commoners
기간	2023.09.26. ~ 2024.08.25.
장소	상설전시장 3층 복도
누리집	https://pocket-museum.org/

1-2) 세부 내용

	작품명	내용	이미지
1	누굴까? 자연의 목소리	경기도의 멸종 위기 동물을 중심으로 자연의 소리를 시각화한 패턴을 보여 주고 퀴즈를 맞추고 온라인 숲을 산책하며 자연을 청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	
2	내가 만드는 박물관	전시물을 직접 그리고 배치하여 나의 박물관을 높이 쌓을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원하는 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을 수집한다.	
3	말랑말랑 꼬마 친구들	찰흙 놀이를 하듯이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3D 점토로 나만의 상상 친구를 빚어보는 촉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4	박물관 속 우리들	나만의 AR가면을 그려보고 웹캠을 이용해 쓰고 박물관에 함께 온 사람들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	

3) 참여 작가 소개

커머너즈(Commoners)는 디지털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대적인 요구를 탐색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스튜디오이다. 작가는 디지털이 주는 생동감과 새로운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관람객이 자신만의 조형적인 표현을 경험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그리기에 영감을 받아,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상상과 표현을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인터랙티브 아트워크 4점을 전시한다.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다시, 다다익선>(2022) 등을 비롯하여 V&A 뮤지엄, 환기미술관,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인터랙티브 아트워크를 선보여왔다.

4) 전시 및 작품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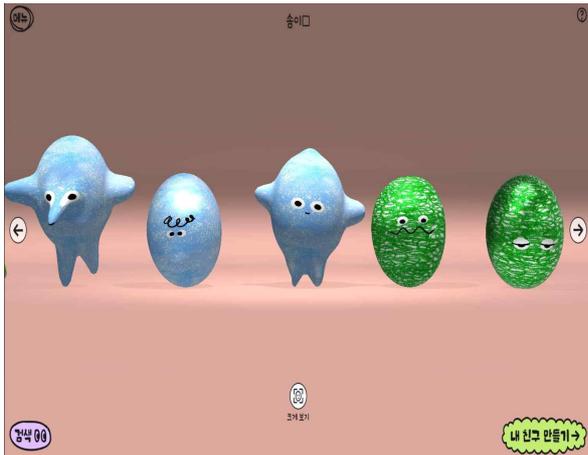
전시 대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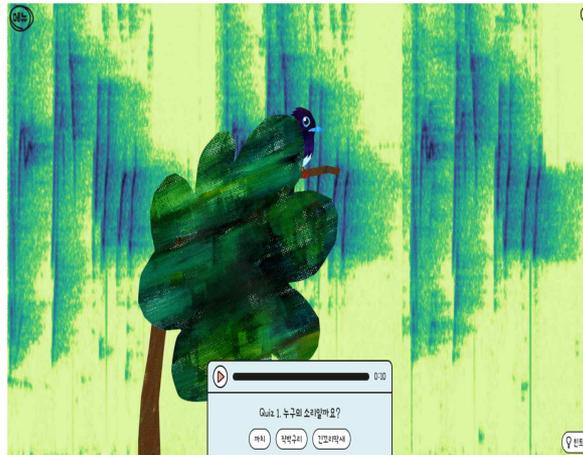
전시 전경



전시 세부 사진



<내가 만드는 박물관>, 2023



<말랑말랑 꼬마 친구들>, 2023

<누굴까? 자연의 목소리>, 2023

붙임2. 작품 및 참여 작가 소개 2

1) 작품 소개

작 품 명	《우리 몸은 무지개》
주 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주 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참여작가	박길종(길종상가)
기 간	2023.09.26. ~ 상시 운영
장 소	상설전시장 2층 복도

2) 참여 작가 소개

박길종 작가(길종상가)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내 유수의 예술기관 및 NAVER, 에르메스,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설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작가의 위트 있고 창의적인 설치 작품들은 이용자에게 휴게 공간으로써의 기능적 역할과 예술 작품으로의 심미적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작가는 주변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상상 속의 의자나 벤치 형태의 설치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과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다양한 소재와 색상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미감과 유머러스한 또 때로는 철학적인 오브제의 형태는 박길종 작가만이 구상할 수 있는 설치 작업이다.

개인전

2023 <여름 그늘, 휴거>, 시청각, 서울

2013 <네(내) 편한세상>,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 서울

주요 단체전

2022 <<PLASTICS™> : Recycling is a new normal>, SEOUL DESIGN FESTIVAL, 서울

2022 <도시는 미술관>, 소다미술관, 화성

2021 <재난과 치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1 <UNPARASITE>, 플랫폼엘, 서울

2020 <사물탐색:미술감상법>,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

2020 <호텔 사회>, 문화역 서울284, 서울

2019 <한글 디자인: 형태의 전환>,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 <DMZ 평화정거장>, DMZ 내 캠프 그리브스, 파주

2018 <유휴공간 프로젝트>,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2018 <apmap 2018 jeju>,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제주

3) 작품 사진



박길종, 우리 몸은 무지개(전경), 금속·혼합매체, 가변 설치, 2023



박길종, 우리 몸은 무지개(전경), 금속·혼합매체, 가변 설치, 2023



박길종, 우리 몸은 무지개(세부), 금속·혼합매체, 가변 설치, 2023



박길종, 우리 몸은 무지개(세부), 금속·혼합매체, 가변 설치, 2023



박길종, 우리 몸은 무지개(세부), 금속·혼합매체, 가변 설치, 2023